

# 발달장애 정은혜 작가 뉴욕진출 기념전 '지로의 꿈'

✎ 신현희 기자 | ⓒ 승인 2023.09.05 13:12

## 길 잃은 유기견과 사회와 단절된 자신의 교감이 작품 속에 나타나

[시사매거진 303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역할로 나와 존재감을 드러냈던 작가 정은혜. 실제 선천적 다운증후군과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그녀는 세상으로 나온 것뿐 아니라 브라운관까지 섭렵했다. 그녀의 강렬한 연기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금 더 희석시켰다. 그렇게 셀럽이 된 정은혜 작가는 국내 전시를 넘어 뉴욕으로 진출한다. 오는 12월 14일 미국 뉴욕 첼시에 위치한 Ricco/Maresca Gallery에서의 전시회를 기념해 국내 케이리즈갤러리에서 먼저 작품을 선보였다.



정은혜 작가는 "세상에 버려지고 싶은 개는 없어요. 인간도 동물도 함께 잘 살아야죠. 저는 앞으로도 지로와 함께 살며 지로를 계속해서 그릴 겁니다"라고 밝혔다.(사진\_케이리즈갤러리)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케이리즈갤러리에서 정은혜 작가의 뉴욕 진출 기념 전시인 '지로의 꿈'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정 작가가 과거 유기견이자 자신의 반려견인 지로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지로만의 개성과 감성을 섬세하게 묘사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로를 그린 작품 11점과 다양한 인물을 그린 채색원화 12점이 전시된다. 관객들은 길을 잃은 유기견 지로와 장애로 인하여 사회와 단절된 인간 정은혜가 서로 교감하며 상호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일상과 감정이,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새롭게 탄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선천적 다운증후군과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정은혜 작가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실제 자신의 성향을 많이 반영한 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영희 역을 맡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 작가는 캐리커처를 그려온 현역 화가이자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이다. 그녀는 경기 양평의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2016년부터 초상화를 그려왔으며, 노희경 작가를 포함해 4000여 명의 얼굴을 그려 전시한 <니얼굴>의 작가로서 자신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리게 되었다.

그녀는 그림을 매개로 하여 타인과 소통을 시작하여 그림 속 인물들을 그려나가며 그녀만의 세계를 만들어왔으며, 이렇게 그림을 만난 후 그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케이리즈갤러리 리즈 김 대표는 "본 전시가 각자의 삶에서 꿈과 목표를 잃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희망과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전시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 또 하나의 우리 이웃으로서 장애인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작가는 전시를 앞둔 인터뷰에서 "저는 이미 작가로서의 꿈은 다 이루었어요. 그동안 사람들 얼굴을 많이 그렸으니, 앞으로는 이번에 그린 지로처럼 개, 고양이, 나무, 꽃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도 계속해서 그리고 싶어요"라며 "세상에 버려지고 싶은 개는 없어요. 인간도 동물도 함께 잘 살아야죠. 저는 앞으로도 지로와 함께 살며 지로를 계속해서 그릴 겁니다"라고 자신의 계획과 꿈을 밝혔다.



나를 기다리는 지로, 63.5\*52cm (사진\_케이리즈갤러리)







지로야 보고싶어 59.5\*71.5cm (사진\_케이리즈갤러리)

